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21:00 (찬양미사)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사무실 문의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 알 림

- 오늘은 교회가 정한 25번째 농민주일입니다.
 -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농민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 미사 재개 안내
 - 어린이 가족미사 : 매주 토요일 16:00, 대성전
 - 중·고등부 : 오늘 10:30, 소성전
- 초등부 주일학교 등록
 - 어린이 가족미사 전·후 성당 입구
- 가족 신앙 학교
 - 대상자 : 유·초등부(첫영성체 대상 예비자 가정)
 - 일 시 : 8월22일(토) ~ 23일(주일)
 - 장 소 : 내리 살레시오 피정센터
 - 참가비용(본인부담 50%, 본당지원 50%)
 - * 성 인 27,000원, 어린이 24,500원
 - 교통편 : 자차 우선, 버스 이용 가능
 - 문의 : 김미리 에블린 수녀(010-3037-1015)
-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 주 제 :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 일 시 : 8월08일(토) ~ 09일(주일)
 - 장 소 : 내리 살레시오 피정센터
 - 참가비 : 30,000원
 - 점 수 : 중고등부 교사 회합실(주일)
 - 문 의 : 조국주(010-3037-1015)
김준우(010-3382-1949)
- 유아 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7월 중에 시작 예정)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안내
 - 성당 정문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바코드를 제시하여 출입 기록을 합니다.
 - 바코드가 있는 타본당 신자는 바코드를 제시하고, 없는 분과 타교구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발열 검사를 받은 후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다음 주일(7/26)은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구 분	새벽미사 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7월19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7월26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8월02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8월09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8월16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주일 (7/2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8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7/08일 ~7월14일)

• 교 무 금		6,157,000 원
• 주일헌금		3,433,500 원
• 감사헌금	정충상10만원 천은주 5만원 익 명:3만원 이정현10만원 심점순 5만원 김수자10만원 최○○50만원 오광운2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7/19	이인옥	오성한 김영균 김진수 엄태환	최승일 손정주
7/26	최경희	서윤석 하재민 최상림 김재규	최운조 백희자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밤9시
7/19	이성일	최승일	이계명 장인홍 최상남	박용환	오광운	없음
7/26	이운영	오광운	최승일 최창열 최석준	장인홍	박형순	없음

● 주보 7면

- 오라토리오 학생모집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통장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교육 봉사자 모집
(국어·영어·수학)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298. 억압받는 사람들은 외적 수단으로 공격할 수 있나요?

테러리즘의 폭력 행위는 엄격하게 단죄됩니다. 이 폭력 행위는 자주 임의적으로 선택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인간 생명을 완전히 경멸하고 있음을 야비한 방식으로 보여 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 행위는 증오, 유혈, 죽음, 복수와 보복 등을 부릅니다. 테러 공격의 목표는 선전 포고된 전쟁의 군사 시설이 아니라, 대체로 일상적인 삶의 장소들입니다.

299. 종교로 동기를 부여받은 테러리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어떤 종교도 테러리즘을 허용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것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테러리즘을 선언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테러 행위를 일삼다가 죽는 자를 ‘순교자’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증인인 순교자는 신앙의 진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그 진리를 증거 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테러리즘을 분명하게 멀리하고, 테러리즘의 원인을 함께 제거하며 아울러 민족들 간의 우애를 돈독히 다져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300. 테러 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나요?

테러 행위를 반대하는 노력은 테러리즘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들을 퇴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통제하기 어려운 공격이 실행될 수 없는 환경들을 조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테러리즘에 대한 정당방위권이 도덕적·법적 규범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테러 행위에 대항하는 국제적 협력도 단순히 억압과 징벌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동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301. 어떤 윤리적 원칙이 오늘날 자연 과학에서 인정받나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보편성: 검증할 수 있고 표준화된 논증을 통한 보편성 추구
2. 공동체 의식: 모든 사람이 과학의 성과에 참여하는 권리
3. 무심한 태도: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은 배제
4. 회의적 태도: 특유의 성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각오

302. 과학의 성과를 남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원자 폭탄 이후에, 과학이 더 이상 윤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안은 특히 ‘생물학적 안전성’ 영역에서 논의됩니다. 의료발전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적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생물학적 테러주의자들과 다른 범죄자들에 악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생명 과학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개인과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해의 의도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